

# 무주군, 향토문화유산 신규 지정

### 두길교회·설호사·김해김씨 김범수 소장 고문서 3건

무주군은 설천면 두길리 소재 '두길교회'와 소천리에 위치한 조선 후기 사당 '설호사(雪湖祠)', 김해김씨(金海金氏) 김범수 소장 고문서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향토문화유산은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시(군)·도 조례에 기반을 두고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문화재로, 무주군에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한 3건 외에도 금강 버룻길, 옥영재, 의병장 장지현 장군 묘역 등 총 15건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두길교회'는 구한말 마로덕 선교사의 무주 순례를 통해 설립된 교회(1904년 설립)로, 그 역사가 120년 가까이 된다.

특히 1954년 교인들이 건축한 두길교회 구 예배당은 전북 동부권(무주, 진안, 장수) 지역에 남아있는 근대 교회 건축물 중 가장 오래돼 지역 내에 기독교가 유입된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건축학적, 역사적 가치가 높다.

또 기독교 유입과정에서 나타나는 서양 건축양식과 한식 목구조가 결합된 양식이 엮여있으며, 남·녀 출입시설이 구별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초대 영수를 지낸 김재순은 무주군 적상면 소재 여울교회의 전일봉과 함께 항일운동을 펼친 인물로 꼽힌다.

'설호사'는 설계수록을 집필한 무주의 인물 설계 박치원(1732~1783 무주군 설천면 출신)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철종 11년(1860)에 건립



무주군은 설천면 두길리 소재 '두길교회'와 소천리에 위치한 조선 후기 사당 '설호사(雪湖祠)', 김해김씨(金海金氏) 김범수 소장 고문서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된 사후로, 인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정이 됐다.

박치원은 어려서 송명흥의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18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토실에서 기거하면서 유가의 경전과 성리서를 모두 섭렵하고 도가, 불가, 기백의 의술까지 두루 연학한 은사(隱士·비술을 하지 않고 숨어 학문만 선비)로 꼽힌다. 그의 저서 '설계수록'은 유형원의 '반계수록'이나 이익의 '성호서설'과 서로 표리를 이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해김씨 김범수 소장 고문서'는 안경공과 23세손인 김범수(무주군 적상면 출신)씨가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로 교지와 첩, 전령, 호적류 등 총 39점이다. 특히 6대조 김진성의 '적상산성 별장 차정첩'은 무주 적상산 사고와 관련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준호구' 및 '호구단자' 등 관문서 또한 무주부(茂朱府)에서 발급한 것들로 당시18~19세기 지역 인물들의 다양한 활동 상황과 문화와 생활사를 알아볼 수 있는 연구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무주군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다.

황인홍 군수는 "보존 가치가 있는 지적·물질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기존 향토문화유산과 더불어 신규 지정된 문화유산의 가치를 관광자원화 시키는 등 무주군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 5일 '두길교회'와 '설호사(雪湖祠)', '김해김씨(金海金氏) 김범수 소장 고문서'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전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영농철농작업대행서비스 '호응'

### 무주군, 농기계 12종 49대 이용 경영비 절감·수확 등 도와

무주군이 영농철 농작업 대행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농작업 대행은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대신하고 고가의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농업기계 사용이 어렵고 일손이 부족한 고령, 영세농, 여성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6월까지 콤바인과 트랙터 등 총 12종 49대의 장비를 이용해 사료작물(호밀), 보리 수확, 옥수수 파종, 하우스·밭 정지 작업을 진행하며 7월부터는 사료작물(옥수수, 수단그라스, 벼짚)과 벼 수확 등을 도울 예정이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기계팀 배진수 팀장은 "농작업 대행 규모가 2020년도에 485농가 158ha, 2021년도 439농가 164ha, 2022년도에는 421농가 171ha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4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상반기에만 동력예취기 외 3종 6대의 농기계와 부품, 운영재료를 추가로 구입해 휴업에도 농작업을 대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농기계 임대와 순회수리 등도 확대해 적기 농



작업을 위한 농가 수요에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에서는 무주와 무풍, 안성분소에 이양기 등 농기계 76종 508대를 갖추고 이를 필요로 하는 농가(무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에 임대하고 있으며 산골오지마을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비롯해 운전조작법 등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무풍면에 거주하는 농업인 김모(73)씨는 "농사는 때가 있는데 해마다 일손을 딸리고 속이 탈 때가 많다"며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일이랄지, 일시에 대규모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농작업 대행, 농기계 임대 서비스가 효자"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 통

### 진안군,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집중 홍보기간 운영

진안군은 6월~8월까지 3개월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 집중 홍보 기간으로 운영한다.

군은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 시행 3주년을 맞아 제도 정착을 위해 시행되며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는 투명 페트병의 내용물을 비우고 포장 비닐을 제거한 후 압착해서 푸깅을 닫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는 것으로,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면 연 2.9~10만%의 고품질 재활용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진안군에는 318개 마을 클린하우스 내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함이 설치돼 있으며 무인회수기를 고흥마을 외 4개소에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천천면민의 날 천천면지 출판기념회 성료

장수군 천천면은 지난 5일 천천체육공원에서 면민들의 화합과 번영을 위한 '제23회 천천면민의 날 및 천천면지 출판기념회'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뤼했다.

이날 행사는 천천면 주최, 천천면체육회(회장 서문경) 주관으로 열렸으며, 최훈식 장수군수와 정장복 장수군의회회장, 안호영 국회의원, 박용근 도의원 등 각 기관·사회단체장, 향우회원, 지역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천천면 풍물단 및 색소폰팀과 민요팀, 난타팀, 노래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기부자 손점택, 500만원)과 기념식도 이뤄졌다.

1부 기념식에서는 면민회합과 고향발전에 기여한 3명에게 면민의 장을, 면지편찬에 도움을 주신 3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기념식 후 2부 행사는 체육경기와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져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흥겨운 한마당 잔치가 펼쳐졌다.

이날 천천면민의 장은 산업공익장에 이상철(68)씨, 애환장에 박창근(67)씨, 효열장에 이마리 요시에씨(63)가 수상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모두가누리는 '무장에 열린관광지'

진안군,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서 준공식 가져

진안군은 미술쟁 그린 가이드 별3개 만점에 빛나는 국내 대표 관광지인 마이산 도립공원이 아동약자들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열린관광지로 재탄생했다고 밝혔다.

7일 군에 따르면 마이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김종필 진안부군수를 비롯해 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장에 열린관광지' 준공식을 갖고, 시각장애인 구성된 나눔여행단 30여명과 함께 '마이산 장애인 관광해설 프로그램' 체험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무장에 열린 관광지'는 관광지별별 진입지점부터 주요 관광시설까지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도 모두가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관광지를 일컫는다.

진안군은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열린관광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1억원(국비 5억원, 군비 6억원)을 투입해 열린관광지 사업을 추진했다.

군은 무장에 관광동선 조성은 물론 마이산 탐사 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마이산 모양을 그대로 본떠 만든 촉각 전시물과 점자 팸플릿을 제작했으며

### 진안군의회, 우수사례 적용 공무국의 출장 마쳐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남부 및 북부 산립지역으로 공무국의 출장을 다녀왔다.

4년 만에 진행된 이번 공무국의출장은 '독일에서 배우는 산림휴양과 지방정원'을 주제로 세계적인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 치유도시 바트 보리스호펜, 정원도시 만하임 등에서 진행됐다.

첫 방문지인 프라이부르크 시정에서는 클라우드 폰 찬 환경국장의 발제로 프라이부르크 정책실장과 브리핑이 진행됐으며, 한글로 제작된 각종 자료를 통해 수준 높은 토론과 우수사례 접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이어 바트 보리스호펜에서는 다니엘 플뤼겔 부시장의 안내로 세계 크라이프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크라이프 치유법의 도입과 적용방안에 대한 다양

한 의견을 공유했다. 아울러 함께 진행된 치유공원 시찰은 크라이프치유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역력 강화를 위한 환경, 식생활 및 행정기관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2023 독일연방정원박람회 방문을 통해 지역의 명품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착안점을 모색했으며, 앞서 방문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접목방안을 모색 할 수 있었다.

끝으로 마지막 방문지인 프랑크푸르트에서는 홍삼축제 티셔츠를 착용하고 시청사와 뱀파이어관에서 '2023 진안홍삼축제'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공무국의출장과 지역홍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장수군은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장수를 남산 충혼비에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기관단체장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추모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린 후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추모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최훈식 군수는 추념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용기와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보훈정책을 펼쳐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